

함평군, ‘함평천’ 활용 지역 대표 랜드마크 만든다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
‘친수공간’ 확대 시설 뒷받침 절실
유휴부지 중장기적 개발 계획 등
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 기대감

전남 함평군이 도심 하천인 함평천을 중심으로 지역 랜드마크 조성에 나선다. 자연 생태자산과 생활 인프라, 관광 요소를 결합한 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면서 도심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함평군은 14일 ‘함평천권역 종합개발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이날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함평천은 함평읍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 대표 하천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자연 자산이다.

최근 여가와 관광 수요의 확대에 따라 하천은 단순한 지수·이수 기능을 넘어

‘친수공간’으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함평천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여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군은 이번 마스터플랜을 통해 고수부지·하중도 등 하천부지를 친수공간으로 재편하고, 주변 유휴부지를 연계한 중장기 개발 계획을 마련해 함평천을 군 대표 명소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은 ‘함평나비대축제’, ‘대

한민국 국향대전’ 등 지역 대표 축제와도 연계돼 관광객 체류 시간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촉진 등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천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개발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함평군, 전 직원 대상 강의 개념·관련 법령·예방 방안

전라남도 함평군이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14일 함평군은 공직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교육은 직장 내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과 폭력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선순진 전문가 강사를 초청해 실시됐다.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개념, 관련 법령, 예방 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공직자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였다.

함평군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속적인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내 성평등의식이 성장하고 있다”며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청년 농업인 지원’ 신청자 모집 영광군, 45세 미만… 23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이 오는 23일까지 지역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은 ‘청년 창업농장 조성 사업’ 등 총 2종 2개소로,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신청 자격은 45세 미만(1980~2007년 출생자)의 청년 및 예비 농업인이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역 및 신청서는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으며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350-4832)으로 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의 창업이 지역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담양군,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고독사 예방’ 실시간 안전망 구축



전라남도 담양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관내 1인 가구 21곳에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사업’은 가정 내 전력 사용량과 조도(밝기) 변화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스마트 플러그는 TV 등 가전제품에 연결되며 일정 시간 동안 전력 사용이나 조도 변화가 없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 알림 문자가 전송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방문 중심 돌봄에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더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줄이고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가 1인 가구의 고립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담양군이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한 ‘가족과 함께하는 임신부 건강교실’에서 참가자들이 머그컵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가족과 함께하는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전라남도 담양군이 최근 관내 등록 임신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임신부 건강교실’을 운영했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임신부와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 증진, 태아와의 애착 형성을 돕기 위해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1박2일간 진행됐다.

임산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태아를 위한 태교와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호수생태원 에코 트랙킹을 비롯해 ‘우리 아이 머그컵 만들기’, ‘싱잉볼과 함께하는 임신부 힐링요가’, ‘대명 접시 만들기’, ‘친환경 밥상 체험’ 등 다채로

운 활동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건강교실이 임신부와 가족 모두에게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 전 건강검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장려금,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영광군, 불갑산 하이패스IC 개통

4.5톤 미만 차량 통행

전라남도 영광군은 지난 13일 영광읍 학정리 서해안고속도로 졸음쉼터와 연결되는 불갑산 하이패스IC(서울)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계호 국회의원, 장세일 영광군수, 김강현 영광군의회 의장, 김준영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주민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이번에 개통한 불갑산 하이패스IC(서울)은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4.5톤 미만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총 사업비 약 113억원이 투입됐으며 영광군과 한국도로공사가 협력해 설치했다.

이번 개통으로 지난 2021년 12월에 개통한 불갑산 하이패스IC(목포)와 함께 양방향 모두 이용 가능해져 상·하행선에서 무정차 진출입이 가능해졌으며 이



지난 13일 영광군이 불갑산 하이패스IC를 개통했다.

영광군 제공

에 따라 주변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서해안고속도로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불갑산 하이패스IC 개통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체와 농업인들의 생산물 운송 여건도 개선돼 전반적인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함평군, 변호관 영치 등 강력 처분

전라남도 함평군이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14일 함평군은 체납고지서 발송 및 카카오톡 알림톡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자동차·채권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는 안내문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ATM,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징수활동도 함께 병행할 방침이다.

정순용함평군재무과장은 “이번 집중정리기간을 통해 자주채원 확보와 공정한 조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